

# 정률성 탄신 110돐, 음악과 혁명의 교향

## - 기념 계열 활동 할빈서

우리 나라 '군가의 아버지' 정률성동지를 깊이 추모하기 위한 '정률성 탄신 110돐 기념' 계열 활동이 8월 9일-10일 할빈에서 개최되었다. 활동은 문화및관광부,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에서 주최하고 문화및관광부 예술사, 중국음악가협회, 중국교향악단, 할빈시문화라지호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에서 맡아했다.

정률성의 대표작들로는 <연안송>, <중국인민해방군군가> 등이 있다. 2009년 정률성은 '새 중국 창건에 돌출한 기여를 한 영웅 모범인물 100인'에 선정되었다.

9일 오후, 활동에 참가한 대표들은 할빈시 도리구에 위치한 '인민음악가 정률성 기념관'을 참관했다. 기념관 전시청 면적은 1,016평방미터이고 300여건의 전시품이 진열되어있다. 전시는 '혁명을 노래', '연안을 가송', '항전승리를 경축', '시대의 노래자', '선률 속에 영생'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혁명사업에 무한히 충성하고 전심전력으로 새 중국 음악사업에 헌신해온 정률성의 일생을 전면적으로 회고했다.

정률성 탄신 110돐 기념 교향합창음악회는 리시초가 지휘봉을 잡고 정률성의 부동산 시기의 대표작들을 무대에 올렸는바 관현악, 독창, 합창, 시랑송 등 다양한 표현형식으로 정률성의 창작 풍격과 혁명정신을 보여줬다.



정률성 탄신 110돐 기념 교향합창음악회 현장

<연안송>, <중국인민해방군군가> 등 익숙한 선율들은 현장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불러냈다.

정률성 탄신 110돐 기념 좌담회에서는 문화및관광부, 중국문련, 연안혁명기념관 등 단위의 대표들이 선후로 발언했다. 이들은

정률성의 생평과 돌출한 기여를 회고하면서 광범한 문예일군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문예는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근본 방향을 시종 견지하면서 시대정신을 갖춘 우수한 문예작품들을 더욱 많이 창작해낼 것을 고무격려했다. / 신화사

##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 연변 로인절의 유래와 의의

- 신기덕 -

연변 로인절은 조선족이 많이 사는 연변지역에서 각지의 '로인회'가 결성되기 시작한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인협회의 전신은 바로 60~70년전에 존재했던 '로인독보조'이다. 1982년 8월 15일에 이르러 로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중국 최초의 로인사회단체인 동성동진 '로인협회'가 설립되었다. 이 협회의 설립식에서 사람들은 환갑이 된 로인들을 위해 환갑잔치를 베풀어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효행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였다.

8월 15일은 가을에 접어드는 성숙기이자 향전 승리 기념일이기 때문에 로인들은 이날을 자신들의 명절로 정하였다. 이후 매년 8월 15일이 연변조선족자치주 로인절로 지정돼 주당위에서 선전하고 추진시켰다. 2010년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로인권익보장조례>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주당위 서기 겸 주장이었던 조남기동지는 름송엽이 로인절을 창설하리라는 생각을 알고 큰 힘을 보탤고 행사의 준비와 조직에 직접 참여하였다. 결과 제 1회 로인절은 1982년 8월 15일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그다음부터 더욱 인정되고 선전되었다.

예로부터 우리 조선족들은 로인 존중을 가지는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아주 중요한 레절로 여겨왔다. 일상생활에서 로인을 살뜰하게 돌보는데 명절이 되면 먼저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올리고 이어서 마을 어른들께도 인사를 올린다. 1982년 이후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연변의 곳곳에서 로인협회가 결성되었고 1984년에 이르러 8월 15일을 연변 로인절로 제정하게 되었다.

매년 8월 15일에 로인절 경축 행사가 있는데 이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모두 붉은 꽃을 달고 축복을 받는다.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상의 치마저고리를 입은 조선족 녀성들과 연한 저고리에 짙은 색깔의 조끼, 너른 바지를 받쳐입은 조선족 남성들이 점잖은 민속복장을 펼쳐입은 로인들을 모시고 앉아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지식을 나눈다.

이날 사람들은 노래와 춤, 널뛰기, 그네타기, 공놀이, 씨름 등 활공을 하면서 로인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로인을 둔 가족들에서는 막걸리, 떡, 램뽕, 송편 등 음식들을 풍성하게 준비하여 어르신들의 로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시한다.

만 60세를 인생의 분수령으로 보는 조선족들의 특성상 민간에서는 60세의 '회갑연', 70세의 '고희연', 그리고 결혼 60주년을 맞은 '회혼례'가 특히 중요한 행사들이다. 이런 잔치날에는 아들딸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친지들을 많이 초대하여 즐겁게 모시며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로인절은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전통 풍습을 전승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로인을 존중하고 돌보고 동반해야 한다는 인문학적 배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 급부상하는 소도시 문화... 여유로움 즐기기

여행, 귀향 창업, 외국인 투자... 우리 나라에서 '소도시'가 젊은 세대에 매력적인 여행지·주거지·사업지로 각광받고 있다.

## 젊은층이 선호하는 '소도시 문화여행'

올해 휴일 여행지로 소도시를 선택하는 젊은층이 늘었다. 많은 1990년대생, 2000년대대생들이 휴일 내내 소도시에서 보내며 '계획 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발도장만 짙는 식'의 여행이 아닌 여유로움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소도시가 새로운 핫플레이스라고 떠오른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최근 수년간 현지의 기초시설 등 여건이 개선되면서 도시와의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아름다운 환경에 삶의 질까지 수준 높은 생활공간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빼어난 자연환경에서 당지의 품도 인정미를 느끼며 가성비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요즘 젊은층의 여행에 대한 마인드 변화와도 관계가 깊다. 방문 인증샷이나 기존 구성된 상품만 따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체험과 다양한 즐길거리를 추구하고 여행을 통해 삶의 본연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통해 숨겨진 보물 같은 소도시가 점차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 인사는 소도시 문화 여행과 관련한 뜨거운 인기는 관광시장 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

드의 확실한 신호라며 소도시 문화 여행이 앞으로 관광업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농업인'이 선택한 '소도시'

농촌의 젊은 리더, 과학기술에 능통한 혁신형 인플루언서,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영지식을 겸비한 '농업경영인'... 이들 '신농업인'은 귀향하면서 농촌에 새로운 생각과 리념을 가져왔다.

'신농업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는 리유로 소속감·책임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 외에 농촌의 독특한 자원 우위와 광대한 발전 공간, 도시와 다를 바 없는 생활환경 등을 꼽았다.

섬서성 연안시 락천현 '신농업인'에게 휴대전화는 최신 농기구와 다름없다. 과수원을 경영하며 온라인 라이브 방송 등으로 락천 사과를 판매한다. 사과가 꽃을 피우고 과실을 맺은 후 수확·포장·운송까지 전체 생산과정 생산 과정을 라이브로 보여준다. 판매 성수기에는 하루 만에 사과 1,000상자를 판매한 경우도 있다.

##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소도시'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중국을 찾은 많은 외국인들이 이젠 흔한 관광지 대신 독특한 매력의 소도시를 찾고 있다.

'세계의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절강성 의오시가 대표적이다. 중국어로 물건 가격을 흥정하는 아프리카인, 유모차를 밀며 가족과 함께 인형을 구입하는 아랍인... 의오 국제비즈니스센터엔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여러 언어가 들린다.

의오시는 최근 수년간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추진해 외국인 투자자의 생활 및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초 <의오 외국인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 서비스 최적화 위한 10가지 조치>가 발표되었다.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에게 2~5년 기한의 거류허가증이 발급되고 투자형 외국인의 경우 기업 등록, 사업, 거류 등 사안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이후 하루 평균 2만 2,000명이 넘는 외국인 투자자가 의오시를 방문했다. 그중 상주 외국인수는 1만 5,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많은 외국인이 의오시가 사업하기 편리하고 거주하기도 좋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의오 국제비즈니스성이 오픈한 이후 하루 방문자수는 연인수로 약 3,5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점차 많은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중국의 소도시를 찾으면서 '소도시 문화와 경제'에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고 있는 소도시들의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리유이다. / 신화넷

# 형님의 절절한 웃음소리 아직도 귀가에

- 박운봉교수님을 심절히 그리며

© 름송혁



▲ 2007년 직장 연합회 공연무대에서의 박운봉교수 (좌1)와 필자 (좌2) 등

또 한해의 8월 5일이다. 해마다 이날이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박운봉교수님을 묵묵히 그리게 된다. 10년전의 이날, 형님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에게 무한한 그리움만 남겨놓고...

오후따라 지난 일들이 더욱더 눈앞에 새록새록 떠오른다.

1990년 갖 대학을 졸업한 나는 직장에 발을 들여놓으며 형님을 알게 되었다. 당시 형님은 류학을 마치고 돌아온 박사후로서 파격적으로 발탁된 교수였으며 우리 병원 소화와 주임이었다. 그는 우리 젊은 또래들이 숭경하는 대전문가였다. 특히 그의 소탈한 성격과 후배를 아끼는 인품과 덕성은 더욱 우리 젊은이들이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였다.

당시에 해마다 단오절이면 장춘시 여러 단위의 조선족들은 남호공원에 모여 여러가지 민속 활동을 벌이며 명절을 즐겼다. 이때면 우리는 자연히 형님의 주위에 몰려 그를 선두로 오락 활동에 참가하곤 했다. 그때의 그 즐겁고 유쾌하던 정경은 아직도 눈앞에 선다. 형님의 인솔하에 우리 직장의 20여명 조선족 의료일군들은 한집식구처럼 단결되고 화목했으며 서로 아끼고 배려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형님은 곧 우리의 코끼리였다.

그때 우리는 일터에서도 생활에서도 어려운 일만 있으면 모두 박형을 찾곤 했다. 당시에 한 후배 의사가 영국 류학을 가게 되었는데 러비가 모자라 고민하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박형은 추후의 주저도 없이 자기 집 저금통장을 선뜻 내놓았다. 30년전 당시는 갖 출국열이 일기 시작하던 때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류학공부를 마친 후에도 외국에 남아 일자리를 찾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사회환경 속에서도 박형은 앞뒤를 재지 않고 전부의 재산을 털어 어려운 후배를 도운 것이다. 형님의 이런 선행들을 우리는 직접 두 눈으로 보아왔다. 남을 돕는 것을 락으로 여기는 형님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형님은 일찍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에 들어 의료분회 회장을 맡았었다. 그는 주위의 의료일군들을 이끌고 의료조건이 차한 벽지의 농촌마을들에 내려가 촌민들의 병을 봐주고 약을 내주었다. 형님의 영향으로 나도 늘 이런 의료하향 활동에 참가하곤 했다.

20여년간 우리는 줄곧 주말 시간을 리용해 의료하향을 내려갔다. 그때 우리는 성내의 많은 소수민족 산재지역에 발자국을 남기며 몇천명의 환자를 의무진찰하고 사비를 털어 약을 사서 농촌에 가져가고 양로원에 보내주었다. 형님이 늘 버릇처럼 하던 말이 아직도 귀전에 생생하다. "백성들이 우리를 떠날수록 우리도 백성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박형이 개척한 의료하향 활동은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의 고정적인 사업 내용으로 자리잡았다. 의료팀도 시작 때의 몇명의 의사에서 지금은 몇십명의 고급직함 의사로 구성된 큰 대우를 이루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 해마다 하향활동을 벌이고 환자들에게 따사로운을 전해주고 있다.

형님은 천성적으로 성격이 호방하고 생활을 열애했으며 완벽함을 추구했다. 어느 한해 직장에서 중증간부 연합회를 조직했는데 조선족 가무 종목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형은 장춘시조선족중예술단의 전문 무용선생을 모셔왔다. 공연에 참가하는 우리 8명 '무용수'는 퇴근후엔 선생님의 지도하에 한주일을 열심히 무용연습을 했다. 연합회에서 우리가 표현한 민족무용은 한결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 일에 대한 형님의 이런 참다운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형님이 우리를 떠난 지도 어언 10년이 된다. 하지만 형님과 함께 일하며 생활하던 정경은 아직도 눈앞에 삼삼하다. 형님의 절절한 웃음소리로 방불히 귀가에 울려 퍼지는 듯하다. 사람은 떠나고 추억만 남았다... 우리들 마음속에 절절한 그리움만 남겨놓은 형님, 부디 천국에서 모든 것이 여의하시길 빈다!



운남성 대리시 대리고성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 최승희기자